

경주역

2026년 3월

16호

CHA PHARM IN

약대생이 쓰는 약대 이야기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편집부의 말

김미행 : 일 년 동안 편집장으로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차팜인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세요

신선 : 2년을 꼬박 채운 편집팀장이라는 역할을 내려놓고, 이제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나 같은 애정으로 지면을 마주하려 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16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손윤서 : 이번 학기도 화이팅! 재밌게 읽어주세요!

김동현 : 16호 재미있게 봐주시고, 이번 학기도 파이팅입니다! 😊

오승범 : 신입생 때부터 시작해 왔던 차팜인을 이제 떠나보낼 때가 왔네요 😊 다들 개강 핫팅시!^

이가영 : 졸업까지 함께한 차팜인...시원섭섭하네용

오채현 : 이번 호차도 다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다들 재미있게 즐겨주세요!

손정호 : 학교 다니면서 했던 가장 좋은 선택은 차팜인에 들어온 것!

배예진 : 차팜인 덕분에 학교생활 중 즐거웠던 차약의 소중한 순간들을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호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

조혜림 : 차팜인 언제나 감사합니다 편집 열심히 했으니 재밌게 봐주세요 (*·ω·*)

이채원 : 차팜인 즐겁게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우린 : 차팜인 이번 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26년도 화이팅!

권서우 : 차약의 소중한 순간들을 엮었습니다.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주영 : 2025년을 돌아보며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

이창윤 : 재미있게 봐주세요 차약 파이팅!

장준원 : 이번 학기도 다들 화이팅입니다 🍀

정희찬 : 차팜인 많관부!

김민지 : 이번 학기도 힘내봐요! 재밌게 봐주세요 ;)

김민수 : 차팜인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이번 학기도 화이팅 🌸

유수정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약이들 다 같이 파이팅 해요~~

지도교수

양영덕 ntsky0816@cha.ac.kr

편집장

김미행 (약학과 21), chapharmin@naver.com

편집팀

신 선 (약학과 22), 김미행 (약학과 21), 조혜림 (약학과 22), 이채원 (약학과 22), 손윤서 (약학과 23), 한우린 (약학과 24), 김주영 (약학과 22), 김민수 (약학과 23)

취재팀

김동현 (약학과 22), 오승범 (약학과 21), 이가영 (약학과 21), 오채현 (약학과 23), 손정호 (약학과 19), 배예진 (약학과 21), 권서우 (약학과 22), 이창윤 (약학과 22), 장준원 (약학과 22), 정희찬 (약학과 22), 김민지 (약학과 23), 유수정 (약학과 25)

발행회차(펴낸 곳)

2026년 16호(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교지편집부)

01

목차 / 편집부의 말

02

화이트코트 세리머니&차팜데이

03

전국 약학대학 풋살대회

04

‘한약사 문제’ 30년 평행선

05

약학대학 동문회 출범 준비

06

한국임상약학회 추계학술대회

07

차X덕성 연합 약료봉사활동

08

E-스포츠팀 재도전의 결실

09

차온, 줌 독서실 운영

10

차약이, ‘더!’ 가까워지다

11

실패없는 방학 해외여행지 추천

12

자취남 ‘송우리’편

13

차약이들의 MBTI 속마음



제10회 화이트코트 세리머니 & 차팜데이 및 학부모 간담회 성료

약학도로서의 사명감을 가슴에 새기고,
차약인의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 된 축제의 현장

지난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의 상징적인 행사인 '제10회 화이트코트 세리머니 및 차팜데이'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임상 실습이라는 새로운 문턱을 넘는 5학년 선배들을 축하하는 화이트코트 세리머니와, 전 학년이 함께 소통하며 학술적·문화적 성취를 나누는 차팜데이가 어우러져 차약인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행사가 진행된 현암기념관은 이른 아침부터 포스터 스탠딩 설명회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내외빈들로 활기가 넘쳤으며, 학생회 국원 모두가 선배와 학우들을 위한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어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한 덕분에 행사의 완성도가 한층 빛을 발했다.

1부: 차팜데이 - 차약의 열정과 경험을 나누다

3학년 과대표 심규범 학우와 사무국원 권서우 학우의 활기찬 진행으로 1부 행사가 시작되었다. 첫 순서인 '학생활동 발표 1'에서는 우리 학과의 특색 있는 활동들이 소개되었다. 교지부 '차팜인'의 22학번 신선 학우와 23학번 손윤서 학우는 학과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는 활동을 발표했으며, 이어 22학번 이채원 학우가 글로벌 약학 프로그램인 USC ISSP 참여를 통한 생생한 해외 연수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약학 연구 입문' 발표에서는 22학번 조혜림 학우가 판교 차바이오 캠퍼스에서의 깊이 있는 연구 경험을 소개해 후배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열정적인 발표에 학우들은 박수로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고, 1부 순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후 학생들은 점심 식사를 즐기며 화기애애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디오스코리데스 선서'를 복창하며 인류의 건강을 위해 헌신할 것을 엄숙히 다짐했다.

☑ 특별 세션: 학부모 간담회

신뢰와 소통으로 그리는 차약의 미래

같은 날 오후 2시, 홍보관에서는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약학대학의 비전을 공유하는 '학부모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약학과의 주도로 처음 개최된 행사로,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의 교육 목표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설명하며 학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자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약학대학 교수진 소개를 시작으로 통합 6년제 교육과정의 특징, 교내외 현장 실무 실습 및 심화 실무실습 사이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또한 학부-대학원 연계 교육인 '약과학자 프로그램'과 'USC' 등 글로벌 교육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졸업생들의 폭넓은 진출 분야와 현황을 공유하며 자녀들의 미래를 함께 설계했다. 행사는 학부모님들과 교수님들 간의 진솔한 질의응답 시간을 끝으로 약학 교육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마무리되었다.

2부: 화이트코트 세레머니 - 약학도로서의 첫 사명을 입다

오후부터 진행된 2부 화이트코트 세리머니는 정희찬 학생회장과 최서진 부학생회장의 사회로 엄숙하고도 품격 있게 진행되었다. 최현진 학장님의 개회사와 서영거 총장님, 전성표 성남시 약사회장님, 장명섭 포천시 약사회장님의 진심 어린 축사는 예비 약사들의 앞날을 환하게 밝혀주었다. 특히 5학년 선배들이 직접 제작한 학교생활 영상이 상영되었을 때는 장내에 깊은 감동이 흘렀다. 지난 3년간 동기들과 함께하며 일궈온 알찬 학과 생활과 즐거웠던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선배들이 걸어온 길을 함께 공감하게 하며 큰 울림을 주었다.

이어진 화이트코트 수여식에서는 교수님들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운을 입혀주며 전문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전수해 주셨다. 수여식 후에는 학생 대표 성상현, 이가영 학우를 필두로 모든 선배가 자리에서 일어나 '디오스코리데스 선서'를 복창하며 인류의 건강을 위해 헌신할 것을 엄숙히 다짐했다



CHA PHARMDAY

3부: 차팸데이 - 선배와의 조우와 다채로운 예술의 향연

기념 촬영 후, 사무국장 구태모 학우와 기획국장 이예나 학우의 재치 있는 진행과 함께 3부가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선배들의 지혜가 담긴 강연이 펼쳐졌다. 차약 1기 김호인 선배님과 7기 박한솔 선배님은 후배들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전해주었으며, 학우들은 선배님들의 헌신적인 강연에 큰 감사로 화답했다.

축제의 열기를 더한 동아리 공연은 차약인의 다재다능함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이번 화이트코트 세리머니의 주인공인 21학번 선배들은 직접 준비한 특별 공연으로 무대를 빛냈다. 가호의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 데 이어, 폭발적인 에너지가 돋보인 'Grrr' 랩 공연을 통해 축제 분위기를 최고조로 이끌었다. 이어 힙합 및 R&B 동아리 '팜양갱'은 '한 개도 몰라(릴러말즈)'와 자작곡 'Graduation'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고, 춤 공연팀 '요약정리'는 'Body(다영)' 등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무대를 장악했다. 오케스트라 동아리 '팜상블'의 감미로운 '지브리 메들리' 연주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공연의 여운이 가시기 전, 지난 학술적 노력의 결실을 축하하는 학술 포스터 시상식이 진행되어 수상자들에게 영광의 박수가 쏟아졌다.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 경품 추첨에서는 대한항공 기프트카드 15만원권과 애플워치 SE3 등 풍성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환호성이 끊이지 않았으며, 당첨된 학우들의 즐거운 모습과 함께 축제는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제 실습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21학번 선배님들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현장에서 마음껏 펼치며 빛나는 성취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이번 화이트코트 세리머니와 차팸데이가 차약인 모두의 가슴 속에 잊지 못할 자부심과 따뜻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

동부지부를 넘어 전국 무대로

지킴 주최

전국 약학대학 풋살대회

김동현 기자

차의과학대학교, 첫 전국 약학대학 풋살대회 준우승 기록

지킴이가 주최한 전국 약학대학 풋살대회에서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이 준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전국 약학대학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차의과학대학교는 예선부터 결승까지 흔들림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며, 전국 무대에서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번 대회에는 1학년 김민준, 최진명 / 2학년 장준원 / 3학년 김승래, 박희찬, 안민욱, 최홍준 / 4학년 김동현, 정윤수 / 5학년 송인석 총 10명의 학우가 차의과학대학교 대표로 출전해 팀을 이끌었다.

단 하나의 티켓을 향한 동부지부 예선

전국 대회 본선 진출을 위해서는 동부지부에서 단 한 팀만이 올라갈 수 있었다. 그만큼 예선부터 치열한 경쟁이 이어졌다. 첫 경기는 2025년 11월 9일, 강원대학교와의 맞대결이었다. 차의과학대학교는 공격과 수비의 균형 잡힌 운영을 바탕으로 5:2 승리를 거두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이어진 예선 두 번째 경기에서는 2025년 11월 20일, 삼육대학교를 상대로 경기를 치렀다. 접전 끝에 5:3 승리를 거두며 동부지부 예선을 통과했고, 차의과학대학교는 당당히 전국 대회 본선 무대에 올랐다.

지니풋살파크 중화점에서 열린 4강과 결승

본선 4강과 결승 경기는 2025년 11월 29일, 지니풋살파크 중화점에서 진행되었다. 4강전에서 차의과학대학교는 전북대학교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11:3 대승을 거뒀다. 공격에서는 날카로운 마무리가, 수비에서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빛나며 결승 진출을 확정 지었다. 결승전에서는 한양대학교와 맞붙었다. 경기 내내 팽팽한 흐름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맞섰지만, 결과는 3:5 패배로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경기에 임한 선수들의 모습은 결과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무엇보다 이번 성과는 차의과학대학교가 전국 약학대학 풋살(축구) 대회에서 처음으로 기록한 준우승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득점왕과 주장이 만든 팀의 중심

이번 대회에서 차의과학대학교의 준우승 여정에는 두 명의 중심 선수가 있었다. 4강전과 결승전에서 총 6골을 기록하며 득점왕에 오른 1학년 최진명 학우는 날카로운 결정력으로 팀의 공격을 이끌었고, 3학년 김승래 학우는 주장으로서 경기 안팎에서 팀을 하나로 묶으며 안정적인 중심축 역할을 수행했다. 득점과 승부의 순간마다 앞장선 공격의 핵심, 그리고 팀 전체를 조율하며 흐름을 잡은 주장. 두 사람의 역할은 이번 대회에서 차의과학대학교가 끝까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 소감 한마디! ⚽

“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며
준우승까지 올 수 있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뛰어진 팀원들 덕분에
값진 결과를 만들 수 있었고,
이 경험을 발판 삼아
더 성장하는 공차가 되면 좋겠습니다~!
공차 화이팅!!⚽
- 주장 김승래 -

“ 공차 팀원들과 함께 땀 흘리면서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은 함께 격려하며
서로를 믿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승부를 떠나
서로 더 끈끈해지고 단단해지는
공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득점왕 최진명 -

결과를 넘어, 함께 만든 준우승

이번 대회는 단순한 성적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학년과 역할을 넘어 서로를 믿고 끝까지 함께 뛰었던 시간, 그리고 예선부터 결승까지 이어진 여정 속에서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은 하나의 팀으로 완성되어 갔다. 전국 무대에서 처음으로 기록한 준우승. 이는 끝이 아닌 시작이며,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이 앞으로 더 큰 무대에 도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 소중한 증거였다. 승패를 넘어 '함께'의 가치를 증명한 이번 대회. 차의과학대학교의 도전은 계속된다!



김동현 기자



차약 축구동아리
공차 GongCHA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한약사 문제’ 30년 평행선, 법적 공백이 키운 직능 갈등의 본질

현행 약사법의 입법적 흠결 분석 및
약대협(KPSA)의 대응 활동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최근 약사와 한약사 간의 직능 갈등이 다시금 격화되면서, 보건 의료계의 해묵은 과제인 '한약사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약대협)와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약사회



[좌: 대한약사회 로고, 우: 대한한약사회 로고]

갈등의 시작:

타협으로 태어난 한약사 제도

약사와 한약사의 갈등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3년 당시 보건사회부가 '한약 조제는 한의사만 가능하다'는 입법 예고를 하자, 전국 약국의 73.6%가 집단 휴업을 불사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정부는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중재안으로 1994년 약사법을 개정하며 '한약사' 제도를 공식 출범시켰다.

당시 한약사 제도의 신설 목적은 명확했다. 한약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약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초기 설계 당시부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자격으로 규정되었을 뿐, 약사와 동등한 일반의약품 판매권을 부여하려는 취지가 아니었다는 점이 오늘날 논란의 씨앗이 되었다.

30년간 이어진 투쟁과 제도적 소외

한약사 직능 역시 제도 정착 과정에서 거세게 저항해왔다. 2004년 약대 6년제 개편 논의에서 한약학과가 배제되자 학생들은 무기한 단식과 수업 거부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였다. 최근인 2025년에도 한약사들은 대통령실 앞 시위와 규탄대회를 통해 학제 개편 및 제도적 지위 확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논란의 중심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현행 약사법의 맹점:

‘면허 범위’와 ‘개설권’의 충돌

전문가들은 갈등의 본질이 약사법의 조문 해석 차이와 입법 미비, 즉 '법적 공백'에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약사법 제2조는 약사가 '한약 외의 약사 업

무'를,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한다고 명시하여 면허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제20조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개설 주체를 묶어두었고, 결정적으로 제50조에서 "약국 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 맹점이 되었다.

한약사들은 자신이 '약국 개설자'이므로 모든 일반의약품 판매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약사회는 면허 범위를 규정한 제2조를 근거로 한약사의 양약(일반약) 판매를 명백한 면허 범위 이탈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 기관의 해석은 대체로 '면허 범위 준수'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제처는 2013년 "한약사는 한약 외 의약품의 제조관리자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으며, 보건복지부 역시 2025년 최근 공문에서 "약사와 한약사는 각자의 면허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명확한 처벌 규정이나 강제 수단이 부족해 현장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와 약사-한약사 간의 교차 고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들이 보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약사회,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 기름 부은 최근 판결

모호한 법적 공백 속에서 잠재되어 있던 갈등은 최근 한약사의 공격적인 영역 확장과 사법부의 판결이 맞물리며 폭발 직전의 임계점에 도달했다.

약사회에 가장 큰 충격을 안긴 사건은 최근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약국 개설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었다. 부산시약사회와 병원 재단까지 나서며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결과는 대한한약사회의 승소였다. 법원은 현행법상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하는 행위나, 마약류 소매업자가 되는 것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은 승소 직후 "이번 판결은 한약사의 약사 교차 고용, 약국 개설, 마약류 소매업자 지정이 합법임을 법원이 다시 한번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사법부가 현행 약사법의 허점을 근거로 '한약사가 대형 병원 문전에서 전문의약품을 다루고 마약류를 관리하는 행위'에 면

죄부를 준 셈이 되어, 약사회에 "면허 체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여기에 더해, 이른바 '참고형 약국'의 난립도 갈등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약사가 아닌 한약사들이 대형 매장 형태로 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대량 진열·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이를 단순한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받아들이며, "현행법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약사의 고유 영역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자각하고 사상 유례없는 강경 대응에 돌입했다.

"법이 바로 서야 약료가 산다"... 국회와 거리로 나선 약사회

약사회는 현 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이 '입법'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총력전에 나섰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처벌 근거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국회 차원의 움직임을 시작했다.

장외 투쟁도 치열하다. 대한약사회는 전국 지부 단위로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해당 시위에는 약사뿐만 아니라 전국 약학대학 학생회장단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지난 1월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집회는 김태규 대한약사회 약국이사 등 임원진뿐만 아니라,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제15대 정희찬 학생회장, 제16대 권서우 부학생회장이 동참해 정부의 방관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월 14일 릴레이 시위 현장 사진]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출범을 향한 준비 단계 돌입

이가영 기자

2025년 12월 23일,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설립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약학대학 동문회 설립 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하인영, 박찬섭, 최동현, 이영미, 이유진, 이민수, 장세용, 김태희 선배를 비롯해 재학생 이가영, 송인석, 정희찬 학우가 참석했다. 또한 최현진 약학대학 학장과 서영거 총장이 함께 자리해 동문회 설립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동문회의 필요성과 역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동문회가 단순한 친목 단체를 넘어, 현직 약사로 활동 중인 동문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선후배 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서로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약사들이 서로 연결되고, 선배 약사들이 후배 약사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구조가 동문회의 중요한 가치로 제시됐다.

현재 동문회 설립 위원회는 회칙 제정과 운영 방식, 주요 활동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수립 중이다. 동문회의 조직 구성과 임원 선출 방식, 정기 모임 및 행사 운영 방안 등 실질적인 사항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동문회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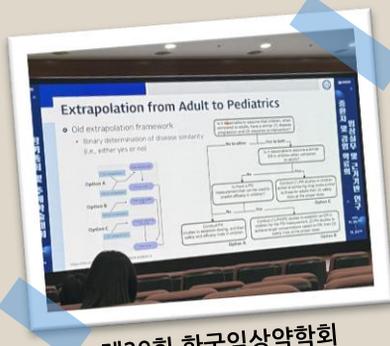
이날 간담회에서 최현진 학장은 약학대학의 성장 과정 속에서 동문회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동문 간 연대가 약학대학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문회 설립과 관련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서영거 총장 역시 동문회 설립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동문회 창단식 개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총장은 동문회가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 대학 차원에서 도 동문회의 안정적인 출범과 활동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는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출범해 회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출범할 동문회는 현직 약사 간 교류 활성화와 선후배 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이를 통해 약학대학 구성원 간의 유대 강화와 학교의 대외적 위상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9회 한국임상약학회 추계학술대회, 그 현장 속으로

손정호 기자



제29회 한국임상약학회 추계학술대회 현장

지난 11월, 전국의 임상약학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제29회 한국임상약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현장은 최신 연구 발표와 열린 토론으로 가득했다. 발표가 이루어지는 공간과 강연을 듣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각 발표마다 정해진 시간 안에도 질문이 끊이지 않는 모습은 학술회의의 치열한 분위기를 단번에 보여주었다.

그 속에서 우리 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5학년 최다혜 학생이 포스터 발표자로 참가했다. 그녀의 연구 주제는 'FAERS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난임 여성의 생식샘자극호르몬 관련 부작용 약물감시 평가'.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의 부작용을 실제 환자 데이터로 분석한 것이다. 학부생으로서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학술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최 학생을 만나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약학연구입문을 통해 최보윤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경험하면서, 임상과 데이터를 연결한 연구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어요. 특히 실제 환자 데이터를 활용해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관심이 난임 환자들의 호르몬 치료제 부작용 분석이라는 구체적인 연구 주제로 이어졌어요. 그러나 연구 과정은 쉽지 않았는데, 특히 처음 접하는 통계 프로그램 SAS와의 씨름이 가장 힘들었어요"

"SAS는 처음 사용해 보는 프로그램이라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어요. 코드를 돌리다 에러가 나서 밤새 붙잡고 있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웃음)"

그럼에도 교수님과 주변의 도움 속에서 연구를 이어갈 수 있었고, 그 경험은 학술적인 성과로도 이어졌다. 한국임상약학회 학술회의와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포스터 발표 두 곳에서 발표 기회를 얻었다고 한다.

"연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고, 시행착오 속에서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Q. 학술회의 현장 분위기는 어떠셨나요?

"사실 학술회의를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준비하기 전에는 어떤 분위기일지 잘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막상 가보니 생각보다 훨씬 열린 토론의 장이더라고요."

"발표가 이루어지는 공간도 있었고, 강연을 듣는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 현장에서 있으니 학부생인 제가 유독 작게 느껴졌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각 발표마다 이루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이었어요. 각 발표마다 정해진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학문적 소통의 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참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학술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최 학생은 후배들에게 약학연구 입문을 꼭 한 번 해보라고 강조했다.

Q.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후배들에게 약학연구 입문을 꼭 한 번 추천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방학 동안 유의미한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과, 연구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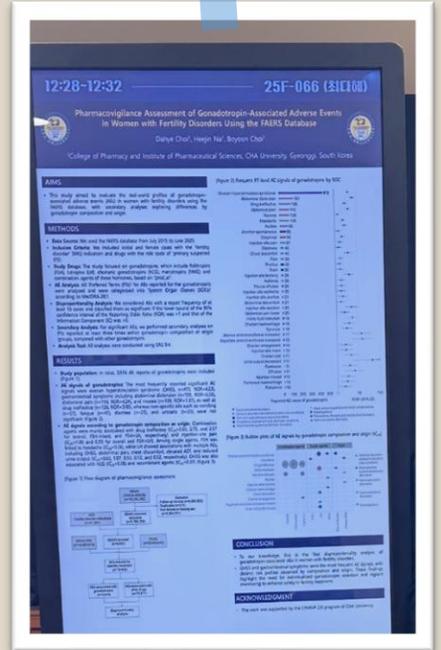
"막상 참여해 보니 단순한 체험에 그치지 않았어요. 제가 맡은 활동 하나하나가 실제 연구의 한 부분이라는 걸 느끼면서, 연구가 어떻게 쌓이고 완성되는지 몸소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훨씬 큰 보람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연구의 매력은 직접 해봐야 알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구는 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망설이기보다는, 한 번쯤은 직접 경험해보라고 후배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학부생의 참여도 생각보다 높았다는 점도 최 학생에게 큰 힘이 되었다.

"생각보다 학부생 참여가 꽤 많았고, 그래서 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 와 보길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얻어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꼭 한 번 경험해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최다혜 학생이 제29회 한국임상약학회에서 발표한 포스터



학술회의를 함께 방문한 최다혜 학생과 동기들

[학술회의 참가 TIP]

- 약학연구입문으로 시작
- : 가장 친숙한 집인구
- 교수님과 상담
- : 연구 참여 의사를 먼저 밝히기
- 혼자가 아니라 같이
- : 동기들과 함께 방문하면 더 용기가 난다
- 학부생도 환영
- : 생각보다 학부생 참여가 많은 자리
- 완벽하지 않아도 돼
- : 시행착오가 곧 성장의 과정



제1회 차X덕성 연합 약료봉사활동

요양원·보육원 찾아 나눔과 소통의 시간 가져

지난 11월 23일,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과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학생들이 포천시약사회와 함께 '제1회 차X덕성 약료봉사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 양교 학생회장들의 주도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예비 약사들이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실무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마련된 연합 프로젝트였다.

전문성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



오전 10시, 차의과학대학교 의과학관에 집결한 학생들의 표정은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다. 활동에 앞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OT)에서는 포천시약사회의 소개와 함께 약료봉사를 위한 사전 교육이 진행되었다. '당업규'와 '케어웰 저염 동전 두부과자' 등 협찬제품 배부와 함께 혈당측정기와 혈압측정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조별로 실습해보는 시간을 보냈다. 이후 각 조별 담당 약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실제 약국을 운영하시며 겪었던 복약 지도 시 주의사항과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논의하며 전문적인 봉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어르신들의 마음까지 살핀 '맞춤형 약료 서비스'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세 개의 조로 나뉘어 지역 내 복지시설을 방문했다. 크게 요양원 두 곳과 보육원으로 나눠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각 시설의 특성에 맞추어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실무에 적용해볼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들로 채워졌다.



1조와 3조는 각각 '가족처럼 요양원', '삼부요양원'에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문진표 작성, 현재 복용 중인 약물 확인, 혈압 및 혈당 측정을 진행했다. 시설 특성상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아 초기에는 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했다. 실제로 처음 보는 학생들의 방문을 낯설어하며 경계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셨으나, 학생들이 곁을 지키며 친근하게 이야기를 건네자 어르신들의 표정은 눈에 띄게 밝아졌다.

건강 문진을 모두 마친 후에는,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 자극과 정서적 지지를 위한 종이접기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학생들이 곁에서 차근차근 접는 법을 설명해 드리자, 어르신들도 서툰 손길이나마 정성을 다해 학과 새를 함께 완성해 나갔다. 손끝을 모아 완성한 학과 새를 보며 아이처럼 기뻐하고, 딱지치기에 몰입하며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현장의 모두를 잠시나마 동심의 세계로 이끌었다.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짧은 시간 동안 정이 든 어르신들과 학생들 사이에는 진한 아쉬움이 감돌았다. 학생들 역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단순한 봉사 이상의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겼다.



눈높이 보건 교육으로 전한 위생과 안전



2조는 보육원 '꿈이 있는 마을', 3조는 요양원 방문 후 장애인 시설인 '남사랑의 집에 방문하여 '약사라는 직업을 소개하고, "우리 몸의 작은 도우미, 약"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약의 종류를 나열하기보다, 약이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약사가 단순히 약을 짓는 사람을 넘어 올바른 약 사용을 돕는 전문가임을 소개하자,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이며 질문을 이어갔다. 이어진 '형광 로션 손 씻기 교육'은 아이들의 큰 흥미를 끌었다. 형광 로션을 바르고 평소처럼 손을 씻은 뒤 UV 램턴을 비추자, 손가락 사이 등에 남아있는 로션 잔여물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의 존재를 시각적으로 확인한 아이들은 학생들의 안내에 따라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를 직접 실습하며 평소 위생 습관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만의 약 봉투 꾸미기' 시간에는 아이들의 각자의 개성이 담긴 알록달록한 약 봉투들이 탄생했다. 학생들은 단순히 색칠 놀이에 그치지 않고, 봉투에 적힌 용법과 용량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설명했다.

특히 3조가 방문한 남사랑의 집에서는 음악 활동을 통한 정서 교류 프로그램이 더해졌다. 학생들과 입소자들이 함께 리듬을 맞추고 노래를 부르며 장애라는 벽을 허물고 진정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배움을 넘어 미래 약사의 사명감을 확인하다

모든 일정을 마친 학생들은 포천시약사회 소속 약사님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활동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강의실에서 텍스트로만 접하던 복약 지도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약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다"며, "타 학교 학생들과 교류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흰 가운을 입고 지역사회 곳곳에 온기를 전한 차의과학대와 덕성여대 학생들. 이번 연합 봉사활동은 예비 약사들이 강의실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예비 보건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실무 역량과 봉사 정신을 동시에 함양하는 소중한 발판이 되었다.



4강 탈락의 아쉬움을 딛고 정상으로... E-스포츠팀 재도전의 결실



2025년 11월 12일, 2025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 E-스포츠 대회에서 우리 학교의 'CHA-E' 팀이 우석대학교의 '이제중심은호남' 팀을 제압하고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우승은 작년 대회에서 4강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동일한 멤버 5명이 다시 도전해 이뤄낸 성과라 그 의미가 더 깊다. 1년 만에 '전국 제패'의 꿈을 이룬 5명의 선수들을 모두 한 번 만나보았다.

CHA-E 라인업



탑
22 신승철



정글
24 최수민



미드
22 정윤수



팀장/원딜
24 김서현



서폿
22 최승호

Q1. 드디어 우승을 거머쥐었다, 우승에 대한 소감은?

팀장 김서현: 우승 때를 회상해 보면 마지막 게임을 끝낼 때 저와 윤수형이 나이스라고 크게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약대협에서 결과를 공지해 주지 않아 아쉬웠는데 다행히 차팜인을 통해 차대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탑 신승철: 일단 같이 준비하고 연습한 팀원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3년 간의 도전이 결실을 이룬 것 같아 너무 뿌듯합니다.

미드 정윤수: 우승도 기분 좋긴 하지만 우승보다 팀원들과 좋은 인연을 만든 것이 더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서폿 최승호: 한번 실패했었지만 같은 멤버로 다시 도전하여 우승하여 더 뿌듯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영 누나의 응원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정글 최수민: 작년에는 같은 멤버들과 함께한 대회에서 4강 탈락의 아쉬움을 겪었지만, 이번에는 다시 함께 도전해 우승을 이뤄내 더욱 기뻐했습니다.

Q2. 우승까지 오면서 가장 상대하기 힘들었던 팀이 있다면

팀장 김서현: 작년 8강 때 강원대학교 팀과 고전했었는데 올해도 8강에서 강원대학교를 만났습니다. 저번 때와 마찬가지로 2:1로 팽팽한 승부가 돼서 저희에게 두 번이나 긴장감을 준 팀이었습니다.

탑 신승철: 가장 곱고러웠던 팀은 아무래도 결승전 상대였던 우석대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드 정윤수: 결승전 우석대학교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서폿 최승호: 우승을 앞에 둔 결승전이 수능보다 긴장되어 곱고러웠습니다.

정글 최수민: 결승 상대였던 우석대 팀이 가장 곱고러웠습니다.

Q3. 본인의 플레이가 이번 우승에 기여한 결정적인 역할이나, 스스로 매긴 우승 기여도는?

팀장 김서현: 이 질문에 대해 다른 팀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한데요 ㅋㅋ. 당연히 게임 내 지분은 제가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 팀을 모아준 참서폿 승호 형, 밥 사주고 차 태워주는 윤수 형, 수업 시간에도 같이 전략짜는 승철이 형, 묵묵히 제 말 따라 바텀 게임 해준 수민이 모두 충분한 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탑 신승철: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지분은 10퍼센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팀원들이 잘해줘서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미드 정윤수: 서현이가 제일 고생했지만 그래도 팀이니까 20퍼센트로 하겠습니다.

서폿 최승호: 10퍼센트 멤버 모으기와 운전 지분.

정글 최수민: 20% 정도인 것 같습니다.

Q4.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순간이나, 우승을 놓칠 뻔했던 가장 아찔한 순간은?

팀장 김서현: 결승전 2세트를 지고 1:1 상황이 됐을 때 가장 위기였습니다. 당시 결승전을 유튜브에서 중계해 줬었는데 동기들의 응원 채팅을 보고 힘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탑 신승철: 마지막 세트, 상대방의 포지션 변경으로 탑 라이너가 바뀌고, 상대 탑에게 솔로 킬을 허용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 킬을 기점으로 상대가 과성장하여 극후반까지 리드를 잡지 못하였는데, 그 경기를 역전시켜 준 다른 팀원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미드 정윤수: 결승전 마지막 세트에 상대 탑이 혼자 트리플 킬 먹었을 때 질 수도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서폿 최승호: 결승전 마지막 세트에 거의 이긴 상황에서 승철이가 쌍둥이 포탑에 돌진한 것이 전 대회 탈락 상황과 너무 비슷하여 아찔했습니다.

정글 최수민: 결승전 세트 스코어 1:1 상황에서 상대 팀의 크산테가 트리플 킬을 기록했을 때가 가장 아찔했던 위기 순간이었습니다.

작년 4강 탈락이라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동일한 멤버로 다시 뭉친 5명은 결국 실력으로 자신들의 선택을 증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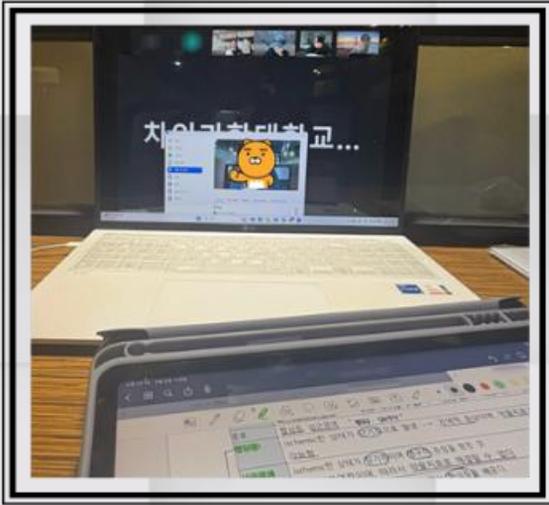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팀을 유지하며 얻어낸 이번 우승은 'CHA-E' 팀의 단단한 팀워크가 만든 결과물이다. 전국 대회 정상이라는 목표를 위해 끝까지 도전해 우승컵을 들어 올린 다섯 명의 주역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차운 학생회, 시험기간 줌 독서실 운영



김민지 기자

시험 기간 오후 9시. 누군가는 자취방 책상 앞에서, 또 누군가는 스터디 카페에서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 공간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화면을 켜 두고 있다. 화면 속에는 책을 펼치거나 노트북을 두드리는 여러 학우의 모습이 이어졌다. 지난 시험 기간 차운 학생회가 운영한 '줌 독서실'의 모습이다.



줌 독서실은 시험 기간 동안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마이크를 끄고 각자 공부에 집중했으며, 화면을 통해 서로의 공부 모습을 공유했다. 별도의 대화 없이 같은 시간에 줌 독서실이라는 한 공간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독서실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했다.

줌 독서실은 기존 오프라인 독서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전까지는 시험 기간마다 강의실을 대여해 독서실로 활용해 왔으나 통학생이나 자취생의 경우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더불어 작년부터는 시험 기간 강의실 대여에 제한이 생기며 새로운 독서실 운영 방식이 필요해졌다.

이에 차운 학생회 국장단과 회장단은 많은 학우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대안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줌 독서실이 제안되었다. 학술국을 중심으로 운영이 결정되며 줌 독서실은 2025학년도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줌 독서실은 시험 주간을 포함해 총 2주간 운영되었다. 공식 운영 시간은 평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였지만, 상황에 따라 새벽 시간까지 자율적으로 운영되기도 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매일 줌 링크가 공유되었고,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었다. '마이크 음소거와 카메라 켜기'라는 간단한 규칙만으로 참여 부담을 낮추었다.

운영을 맡았던 학술국장 박상원 학우는 "서로 채팅을 통해 '으쌔으쌔'하며 응원하던 분위기가 기억에 많이 남는다"라며, "시험공부로 모두가 지쳐 있었을 텐데도 줌 독서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서로 힘을 북돋아 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차운 학생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참여 인원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도 덧붙였다.



차온 학생회, 시험기간 Zoom 독서실 운영



Zoom 독서실은 혼자 공부하던 학우들에게도 여러 영향을 주었다. 박상원 학우는 "원래 시험 기간에는 혼자 공부하는 편이었는데, Zoom 독서실 운영을 맡으며 오랜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새벽까지 같은 화면 속에서 학과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다 보니 괜히 더 돈독해지는 느낌이 들었다"며, "운영 과정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었지만, 차온 학생회 분들의 많은 도움 덕분에 수월하게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학술국원 이해린 학우 역시 Zoom 독서실 운영 경험을 긍정적으로 회상했다. "동기와 선배들이 떨어져 각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함께 공부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며, "시험 기간에 전공 공부를 하다 보면 지겹고 하기 싫어질 때가 많은데, 화면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여러 번 다잡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Zoom 독서실 감독을 했던 경험이 팍팍한 시험 기간 속에서 소소한 추억으로 남았다"고도 덧붙였다.

Zoom 독서실은 오프라인 독서실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마련된 온라인 학습 공간이었다. 시험 기간 동안 학우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운영 방식은 학우들의 학습 흐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년 동안 Zoom 독서실은 학우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학습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차온이랑 같이
공부하자~



차약이, '더!' 가까워지다

장준원 기자

2025년 2학기, 새로운 친목 프로젝트 '차더친프' 마무리

2025년 2학기 약학과에서 진행된 '차더친프(차약이 더 친해지기 프로젝트, 이하 차더친프)'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차더친프는 기존 친목 행사였던 '차친프'를 확장·변형한 프로그램으로, 학우들이 보다 자유롭고 부담 없이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차더친프는 기존의 팀 단위 활동에서 벗어나 개인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매주 공개되는 개인 미션과 팀 미션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미션마다 새로운 조를 편성해 다양한 선·후배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아쉬움을 계기로 탄생한 새로운 친목 방식"

차더친프를 기획한 기획국 중 한 명인 김다경 학우(24)는 이번 행사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원래 차친프는 2학기에 진행하던 행사였는데, 1학년 학우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1학기에 먼저 진행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2학기에 친목 행사가 비어 있는 느낌이 들었고, 차친프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기간이 짧아 아쉬웠다'는 의견이 많았죠. 그래서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새로운 친목 행사인 차더친프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기획단은 같은 형식의 행사를 반복하기보다, 참여 방식부터 달라진 새로운 친목 행사를 만들고자 했다.

개인 미션 도입으로 참여 부담 ↓, 자유도 ↑

차더친프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개인 미션'의 도입이다. 김다경 학우는 차친프 당시 참여를 망설였던 학우들의 의견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차친프는 팀 활동 위주이다 보니 일정 조율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차더친프는 훨씬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 미션을 마련했고, 팀 미션도 매번 조합을 바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러한 변화 덕분에 참여자들은 부담 없이 원하는 미션을 선택해 즐길 수 있었고, 매주 새로운 만남 속에서 자연스럽게 친목을 다질 수 있었다.

"매번 새로운 조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매 미션마다 새로운 조로 활동하는 방식 역시 참여자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다.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새로운 조합이라 매번 신선했고, 전에 다른 미션에서 만났던 사람과 다시 만나 더 친해지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다들 자신이 하고 싶은 미션을 직접 선택해서 온 거라 참여도가 정말 높았던 것 같아요."



"아무거나 미션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실제로 참여자들 역시 차더친프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미션 구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차더친프에 참여한 이현 학우(24)는 참여 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워낙 노는 걸 좋아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해서 더 많은 선배·후배들과 재밌게 놀고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미션으로는 '아무거나 미션'을 꼽았다. "아무거나 미션은 각자 아무 물건이나 가져와서, 물을 먹은 상태로 한 명씩 물건을 보여주며 웃음을 참는 미션이었어요. 저희 조에서 노태운 학우(25)가 오리 비눗방울을 가져왔는데 흔들니까 '꽂꽂' 소리가 나서 정말 웃겼고, 조승빈 학우(25)는 거북이 밥을 가져와서 다들 웃음을 못 참았던 기억이 납니다."

소소한 물건 하나에서 시작된 웃음은 조원들 사이의 어색함을 빠르게 허물었고, 자연스럽게 대화와 친목으로 이어졌다.

"가장 걱정했던 건 참여도... 하지만 기우였다"

행사를 준비하며 기획단이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참여율이었다. "1학기 때 이미 차친프를 진행했기 때문에 '과연 많은 학우들이 참여해주실까?'가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매주 새로운 미션을 준비하다 보니 어떤 미션이 재미있고 참여도가 높을지도 계속 고민했죠."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자연스럽게 해소되었다. "막상 시작하고 나니 많은 분들이 정말 즐겁게 참여해 주셔서, 준비 과정에서의 고민이 다 사라졌어요."

차약이들이 '더!' 친해진 시간

차더친프는 단순한 미션 수행을 넘어, 학과 내 관계의 거리를 한층 좁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현 학우 역시 차더친프 이후 학과 생활의 변화를 체감했다고 전했다.

"새롭게 알게 된 선배님과 후배님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리고 같이 활동한 동기들과는 너무 친해져서 문제일 정도예요. 새 인연도 많이 생기고, 기존에 친했던 사람들과는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학우들에게도 한마디를 전했다. "저는 모든 활동에 참여했는데, 전부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차친프나 차더친프가 아니었다면 만나기 힘들었을 인연들을 만나 정말 친해질 수 있었어요. 약학과 특성상 선·후배 간 교류가 쉽지 않은데, 친해지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면 꼭 추천하고 싶어요."

차더친프는 막을 내렸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쌓은 인연은 학기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앞으로 약학과 학우들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높이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기를 바라며, 차더친프가 차약이들을 '더!' 가깝게 만든 기억으로 오래 남기를 기대한다.

실패없는 방학 해외여행지 추천 오은혜 기자

대학생 시절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무수히 많지만, 그중에서도 일년에 약 4개월이라는 긴 방학이 주어진다. 이는 시기에 많은 학우가 아르바이트나 자격증 취득, 대회 활동 등 저마다의 목표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지만, 때로는 익숙한 곳을 벗어나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해외여행'에 도전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이 본인의 취향과 예산에 맞춰 다음 방학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다녀온 세 곳의 해외여행지를 엄선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알뜰하게 즐길 수 있는 대만부터, 드넓은 초원을 경험할 수 있는 몽골, 태양의 정열과 낭만이 가득한 스페인과 포르투갈까지 가격대 별로 정리했습니다. 각 여행지의 생생한 날씨 정보와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 포인트, 그리고 가본 사람만이 아는 실질적인 꿀팁을 통해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인생 여행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 대만 기호송

#71생비 여행지
#항공 도시 #미식 여행

추천 여행 시기와 기간

11~2월
3박 4일~4박 5일 추천

1월 말은 한국 봄 날씨로 일교차가 큼. 매일 습도가 달라 어느 날은 낮에도 쌀쌀하고, 어느 날은 습하고 더움. 비는 거의 오지 않아 도보 여행에 적합함.

여행 경비

3박 4일 기준 50만 원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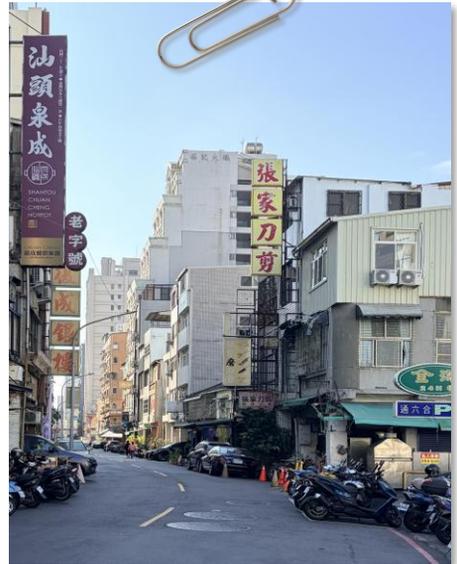
여행 포인트

- # 치진섬: 자전거 타고 섬 구경
- # 보얼예슬특구: 대만의 성수 느낌
- # 루이펑 야시장: 현지 감성 넘치는 북적북적한 야시장. 취두부 냄새도 그만 큼 많이 남.
- # 용호탕: 용의 입으로 들어가 호랑이의 입으로 나오는 탕. 매우 화려함

여행 팁

- # 물가가 한국의 2/3 정도로 저렴함=가성비 여행 가능!
- # 일코피 많이 마시기. 한 잔에 3천 원 이내로 매우 쌉.
- # 편의점 커피라면 육류가 들어가 있어 한국으로 가지고 올 수 없으므로 하나 이상 먹어보기
- # 근교 타이난 당일치기 추천(드라마 [삼천리]의 배경)

대부분이 가는 타이베이 가 아닌 가오슝을 추천하는 이유
여유롭고, 현지의 감성이 많이 느껴짐. 타이베이는 대만의 명동 같은 느낌이라 해외에 있다는 느낌이 적음. 타이베이에 비해 교통량이 적고,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어 '유바이크' 앱을 활용하여 자전거 이동 추천(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오토바이처럼 차도를 달리면 됨). 해가 진 후에는 오토바이 통행량이 많아져 자전거를 탈 때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가 떠 있는 시간에만 타는 것을 추천!



2. 몽골 고비사막

#인생 여행지 #대자연
#디지털 디톡스

추천 여행 시기와 기간

6~8월
6박 7일~8박 9일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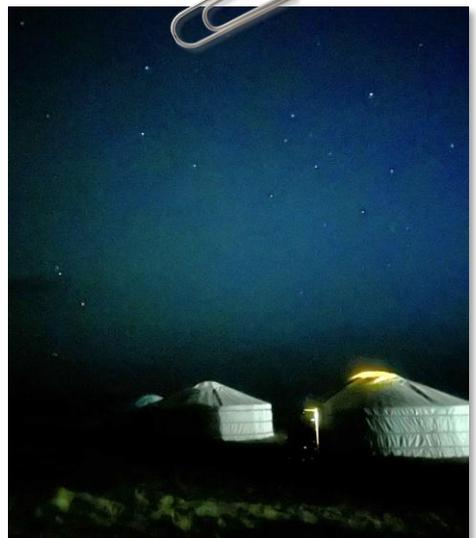
6월 말의 기온은 초여름~여름 정도지만 매우 건조해 땀은 잘 나지 않음. 오히려 해가 진 후나 이른 아침은 추움. 바람막이 같은 겉옷 챙기기
7월은 매우 더우며, 8월 중순만 넘어가도 매우 추워진다고 하니 종종 직후 가는 것을 추천

여행 경비

4박 5일 기준 170만 원 내외

여행 포인트

- 울링양: 승마 체험
- 홍고린엘스: 모래 썰매, 모래 언덕에서의 노을 감상. 생각보다 매우 힘드니 마음의 준비 하기
- 이르렉 먹어보기
- 낱타 타기



여행 팁

- # 몽골 여행의 경우 보통 '러브몽골' 같은 네이버 카페에서 여행사의 견적을 받은 후, 여행사를 선택하면 여행사에서 여행 일정을 짜줌(비행기표는 직접 사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단 비행기표를 싸게 구매한 후 견적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함)
- # 여행사와 인원수에 따라 비용 차이 발생 (이동수단인 차에 최대 6명이 탈 수 있음. 단, 오프로드가 많고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6명보다는 4명이 더 편하다고 느낌)
- #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면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깝지 않음 (추천 콘텐츠: 몽골 노래 듣기, 지나가는 다른 차와 경주하기, 오프로드를 온몸으로 즐기)
- # 비행기표, 패키지 경비를 제외하면 기타 비용은 거의 들지 않으며, 인터넷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비싼 유심이나 이심을 사지 말 것!!
- # 음식 대부분이 육향이 매우 강한 고기이므로 짭어 먹을 고추장 챙기는 것을 추천..



3. 스페인, 포르투갈

#71우디의 나리
#한려해상과 웅상함의 끝판왕
#트럼프와 에그타르트

추천 여행 시기와 기간

- # 4~6월, 9~10월
- # 최소 2주 추천 (스페인 10박 이상, 포르투갈 5박 이상)

1~2월은 한국의 가을~초겨울 날씨. 도시마다 날씨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을 추천. 포르투갈은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오는 시기와 맑은 날이 적을 수 있음(포르투는 특히 해일 정보 주의)

여행 경비

20박 21일 기준 450만 원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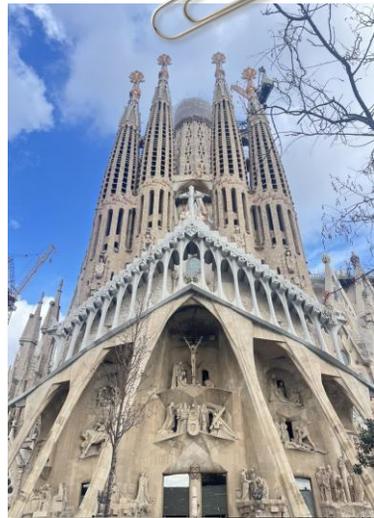
여행 포인트

- # 마드리드: 마드리드 왕궁, 프라도 미술관
- # 바르셀로나: 가우디 투어
- # 세비아: 스페인 광장, 세비아 대성당
- # 그라나다: 알함브라 궁전
- # 리스본: 에그타르트 원조집 방문, 파제이라 광장
- # 포르투: 와이네리 투어, 동루이스 다리

여행 팁

- ★ 도시별 관광지, 교통 패스권/관광지 입장권/도시 간 이동 수단 미리미리 예약 필수!!!
- ★ 국제학생증 무조건 발급받아서 가기. 생각보다 무료입장이 가능한 곳이 많음.

- #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팀이 없어 비싼 유럽 물가에서 비교적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음
- # 바르셀로나에서 가우디 투어하기(사그라다 파밀리아, 가사바트요 내부 구경 필수)
- # 마드리드 왕궁은 입장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으니 들어가는 것을 추천함
- # 레온 맥주, 샹그리아 마셔보기
- # 스페인의 웅장한 건축물들을 보고 난 후에는 다른 나라의 건축물에 큰 감흥이 없어진다는 단점 존재..
- # 포르투갈은 여유롭게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면 재미있는 카페나 포토스팟을 찾을 수 있음
 - #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차원이 달라병 조羹! 에그타르트 카페마다 맛이 다르므로 다 경험해 보기
 - # 와이네리 투어는 선택이긴 하지만 와인 시음도 가능하고 거대한 오크통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 추천
 - # 초콜릿 컵과 체리주 조합 경험하기
- # 음식은 대체로 한국인 입맛에 잘 맞지만, 해산물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많은 경험을 해보지 못할 수 있음





자취남 '송우리'편

"포천이라서 가능했다." | 송우리 아파트 월세

* 본 게시글은 향후 송우리에서 자취를 계획 중인 후배님들을 위한 정보 공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부동산 중개 목적이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아울러, 바쁜 실습 일정 중에도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준 21학번 학우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원일아파트 2차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학년 1년 동안 원일 2차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지금은 글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을 때는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그리고 관리비는 13-15만 원 정도 냈습니다. 24평이었고, 방은 3개, 화장실은 1개였으며 안방을 제외한 나머지 두 방은 크기가 작아서 하나는 창고로, 또 다른 하나는 옷방으로 사용했습니다. 아파트가 오래되긴 하였지만 내부는 깔끔하게 인테리어 되어 있었으며, 수질이 아쉽고 층간 소음이 조금 있다는 점을 제외하곤 만족했습니다!

자취남 '송우리'편을 기획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본 기사는 유튜브 '자취남'의 컨셉을 빌려 후배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위주로 소개하는 이유는 서울 원룸 월세로 포천에서는 아파트 자취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원룸 건물과 달리 아파트는 가구 수가 많아, 인터뷰이의 집이 외부로 쉽게 특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에 대해 특별한 추억이 있나요?

제가 살았던 곳은 차대 약대생들이 3대째 거주해 온 집으로, 18학번과 20학번 선배님들을 거쳐 제가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하하. 전 세입자였던 선배님들이 포천에 오셨다가 집 근처를 지나며 불이 켜진 것을 보고, 과자와 음료를 사들고 응원차 깜짝 방문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ㅎㅎ

마지막으로 룸메님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요즘 병원 실습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 샤워를 하고 있는 순간에도 "아...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게 '집'이란 언제나 돌아가고 싶은 곳입니다.

우정아파트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반려요 울무와 함께 우정 아파트에서 3년 동안 살았던 송우리 공주입니다.

룸메님에게 반려요 '울무'는 어떤 존재인가요?

원래 어릴 때부터 고양이를 엄청 좋아해서 자취를 하자마자 키우게 되었습니다! 혼자 키우기 힘들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힘든 점보다는 오히려 울무는 약대 생활 내내 옆에서 함께하면서 저한테 많은 행복을 줬어요! 외로울 틈 없이 항상 반겨주고 같이 뒹굴 하면서 매 순간을 함께해 준 저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예요 ㅎㅎ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정 아파트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한적한 분위기가 좋았고 무엇보다도 홈플러스와 가깝다는 장점이 컸습니다. 월세는 50만 원, 보증금은 3,000만 원이며 관리비는 10-15만 원 사이가 나왔습니다. 교통은 홈플러스 정류장, 원일 아파트 정류장과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집 앞에 우정 아파트 정류장이 새롭게 생겨서 더 편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ㅎㅎ

자취를 해보면서 "이거 진짜 사기 잘했다~!!"와 같은 게 있나요?

건조기 완전 추천드립니다!! 삶의 질이 수직 상승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큰 용량으로 오래 쓴다 생각하시고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송우리에서 그래도 한적하게 살고 싶으시면 우정 아파트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구하더라도 우정에 살고 싶을 정도로 만족했습니다 :) 완전 추천! 대신 해가 잘 드는 남향 그리고 새시가 되어있는 곳에 사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ㅎㅎ



상운아파트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 송우리 상운 아파트에서 2년을 혼자 자취하였으며 지금은 평일에는 병원 실습을 하고 퇴근하고는 랩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차대 룸메들은 상운 아파트에 잘 거주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취방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집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건 '조용한 환경'과 '가성비'였어요. 이곳은 정말 조용해서 공부하거나 쉬기에 딱 맞았죠. 전세로 6천만 원 정도였는데, 아파트에서 혼자 전세로 살기에 이보다 저렴한 곳은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자차가 있어서 등하교는 편했지만, 사실 차가 없으면 교통편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위치긴 해요.

상운 아파트를 살아보니 이건 좋고, 이건 아쉽다 그런 게 있나요?

장단점이 아주 확실한 집이에요! 우선 이 집의 최대 자랑은 '전망'입니다. 아침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예쁜 햇살을 맞으며 일어날 때(?), '아,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뷰가 정말 끝내줍니다. 그러나 주변에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 단점이에요. 뭘 하든 차를 타고 나가야 하며, 특히 술자리가 있는 날엔 버스나 택시를 타고 돌아와야 하는데 다음 날 아침에 차를 가지러 다시 가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자주 생기곤 했답니다 ㅎㅎ

마지막으로 포천을 떠나며, 후배 룸메님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전세 6천에 아파트 거주 가능?! 가능. 감사합니다!



송천마을 주공 2단지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023년 9월부터 두 명의 동기들과 함께 송천마을 주공 2단지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지금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천마을의 고유명사가 되었는데, 송천마을에 이끌렸던 포인트가 있나요?

함께 동거할 친구들과 방을 보러 다니며 세 번째 집을 보러 갈 때 되니까 체력이 바닥나서, "여기 괜찮은데?"라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송천마을 패밀리가 되었답니다.

동기 룸메들 자취방 중에서 평수가 가장 큰 걸로 알아요. 매달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나요?

32평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였으며, 보증금은 2,010만 원, 월세와 관리비는 합쳐서 매달 약 1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남자 동기 룸메 3명에서 살면서 재밌었던 순간들도 많았겠어요.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룸메 형 친구의 고양이를 2주 동안 잠깐 봐줬던 적도 있고, 길 강아지가 집까지 쫓아와 하루 정도 집에서 키웠던 적도 있었고 ㅎㅎ 무엇보다도 같이 지낸 룸메들과 화교세 무대를 섰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ㅎㅎ

후배 룸메들에게 꼭 하실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동기들과 같이 살아보는 경험 자체는 정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이 살 사람은 정말 잘 알아보고 성향이 맞는지 충분히 파악한 뒤에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같이 살면 장점도 많지만,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스트레스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주할 때 꼭 계약 전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겨두십시오. 나중에 퇴실할 때 괜히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작은 스크래치 하나라도 전부 사진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태봉마을 주공 3단지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동기 2명과 함께 태봉마을 아파트에서 2년간 살았으며, 지금은 베이커리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태봉마을 자취방을 정리하고,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교적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최근에 지어진 편이라, 비용이 꽤 나갈 거 같은데... 한 달에 얼마 정도 비용이 발생했나요?

보증금은 2,000만 원, 월세는 60만 원이었으며, 관리비는 매달 10-15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방은 3개, 화장실은 2개였으며, 안방 화장실은 정말 작았습니다.

많은 룸메들이 태봉마을에 많이 사는데, 살아보니 어떠셨나요?

치안이 좋고, 근처에 먹을 곳이나 스터디 카페 그리고 헬스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좋은 위치라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태봉마을 앞에 '호주커피'라는 카페가 있는데 꼭 가 보세요. 커피도 정말 맛있고, 시그니처 푸딩이 최고예요! 또한 태봉마을에서 수요일마다 작은 장터가 열리는데, 거기서 파는 야채공창이 정말 맛있답니다 ㅎㅎ

룸메만의 자취 꿀템이 있나요?

침대용 탁상 테이블이요! 침대에서 화상 과외도 하고 과제도 하면서 정말 많이 사용했습니다 ㅎㅎ 단점은 공부하다가 그대로 잠든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ㅎㅎ

마지막으로 동기 룸메들과 함께 2년간 살아보니 어떠셨나요?

아파트에서 동기들이랑 같이 살면 정말 재미있어요! 방이 각각 분리되어 있어서 사적인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동기들이랑 여러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완전 추천합니다!

차약이들의 MBTI 속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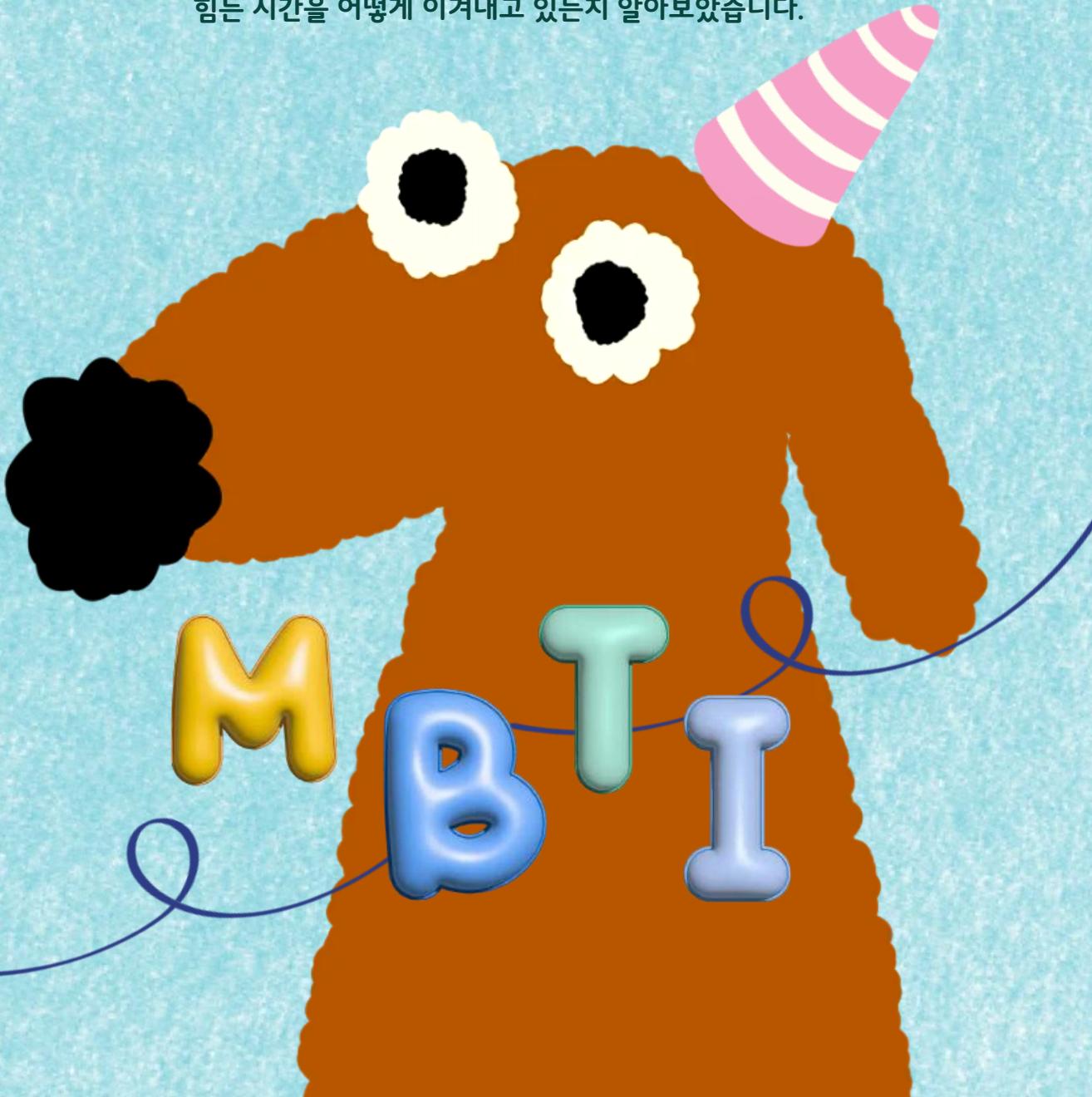
J는 소통, P는 안정을 택한 직업관의 반전

유수정 기자

이 기사는 한우린 학우를 비롯해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 약학통계학 1조 (김상미, 김재윤, 민찬원, 박성은, 이창윤, 최정연)의 도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시험과 퀴즈 속에서도 우리 차약이들은 늘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하지만 그 밝은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속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총 47명의 차약이가 참여한 이번 설문을 통해,
우리가 각자의 MBTI라는 렌즈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힘든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I. 우리 과의 마음을 열어보니: 압도적인 '다정한 신중함'

우리 과의 MBTI 분포는 약학대학이라는 특수성을 품고 있는 듯, 신중하고 책임감 강한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순위	MBTI 유형	인원수
1위	ISFJ	9명
2위	ISTP	6명
공동 3위	INFP / INTP	각 4명
공동 5위	ESFP / ISTJ / INFJ	각 3명
그 외	ENFJ, ESTP, ESFJ 등	각 1~2명

우리 과 47명의 마음을 열어보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다정한 신중함'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과의 주축은 압도적으로 ISFJ 학우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 뒤를 쫓는 전략가 ISTP가 있고 있었습니다.

II. 약사를 꿈꾸는 차약이들의 '직업 가치관'을 엿보다 (Q4)

Q4. "내가 생각하는 '약사'라는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은?"에 대한 응답은 MBTI 성향에 따라 직업을 바라보는 시선을 보여줍니다.

- (A) 정해진 원칙대로 정확하게 일하는 안정감
- (B)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소통하는 보람

전체적으로는 '안정감(53.7%)'이 '소통과 보람(46.3%)'을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하지만, 약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차약이들의 MBTI 성향에 따라 그 매력을 해석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MBTI 성향	안정감(A) 선택 비율	소통/보람(B) 선택 비율	해석
P 성향 (유연형)	60.0%	40.0%	자신의 유연함을 보완할 '구조화된 안정감'을 선호
J 성향 (계획형)	47.6%	52.4%	약사의 '규칙 준수'보다 타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의미'에 집중
S 성향 (현실형)	63.6%	36.4%	정확하고 세부적인 약사 업무 특성과 잘 맞는 '정확한 원칙'에 매력을 느낌
N 성향 (직관형)	42.1%	57.9%	직업을 단순한 규칙 준수를 넘어선 '인간적인 교류'의 장으로 봄

특히, 흥미로운 점은 J 성향(계획형) 학우들이 약사의 매력을 '원칙의 안정감(47.6%)'보다 '사람을 돕는 보람(52.4%)'에서 더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꼼꼼하고 계획적인 J들이 약사 직업을 통해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의미'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유연한 P 성향 친구들은 오히려 직업의 '구조화된 안정감'을 통해 자신의 성향을 보완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III. 오타 하나에 목숨 거는 우리 (Q3)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 집착하는 현대 사회의 경향은,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약대생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설문조사 응답 중 "(B) '남들이 나를 덜렁대는 사람으로 보면 어찌지?' 고민한다."는 반응은 우리 과의 높은 기대치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조명 효과'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사실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에 목숨 걸기보다, 내 두 발로 땅을 디디고 살고 있다는 안정감과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타 하나에 괴로워하기보다,
"인간미 넘치네!" 하고 쿨하게 넘기는
(A)의 여유를 연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IV. 멘탈이 흔들릴 때, 차약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두 가지 주문' (Q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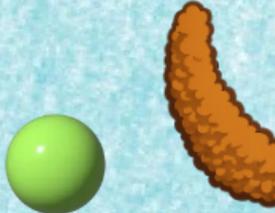
Q5. 멘탈이 흔들릴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주문은?

- (A) "어떻게든 되겠지, 유급만 아니면 돼!"
- (B) "지금 이 고생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될 거야."

우리 차약이들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 주문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특히 (B)를 외치는 학우들은 고통스러운 현재를 미래의 '자산'으로 치환하며 버텨냅니다. 이는 약학이라는 고난도 과정을 숙제처럼 여기고 묵묵히 완수해내는 책임감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숙제처럼 사는 사람들"은 때로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이 아닌 타인의 필요와 인정에 의해 움직이기도 합니다. '고생이 자산'이라는 주문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인생은 남들보다 더 우위에 서기 위함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은 (A)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쿨한 주문을 꺼내어, 완벽하지 못한 존재로서의 '인간다움'을 허용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맺음말: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차약이들의 MBTI 인벤토리는 곧 우리의 다양한 생존 방식을 보여줍니다. 각자의 MBTI 성향에 따라 '안정감'과 '보람' 중 더 끌리는 가치가 달랐듯이,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약대라는 큰 파도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며 함께 나아간다면,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차팜인을 후원해주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차팜인 16호 즐겁게 보셨나요? 차팜인은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려 만드는 소식지입니다. 발간을 이어 가면서,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하나은행 320-910437-29307 (예금주: 장준원)

보내주시는 소중한 마음, 알뜰히 사용하여 더 좋은 지면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apharmin@naver.com / 010-4263-8623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약학대학 소식지 <CHA PHARM IN>은 차약인들이 직접 차약인들의 소식을 담아, 차약인들과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차약인들과 나누고 싶은 소식이라면, 어떤 것이든 환영합니다. 짧은 수필, 나누고 싶은 정보, 재밌게 읽은 책에 대한 소개, 방학 기간 동안 다녀온 여행의 기록, 소중히 그린 그림, 사진, 만화, 문학 등 형식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팜인은 지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은 내용을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주변의 소식지 편집위원이나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기고해주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답례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약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CHA PHARM IN〉 편집장 오채현
chapharmin@naver.com / 010-5336-8254

